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예수님과 함께 하는

특별한 봄맛이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및 교육훈련원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에 돌아난 녹색 빛의 새싹들을 오랜만에 보니 기분마저 상쾌합니다. 간간히 불어대는 찬바람에 다시 몸이 움추러 들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깐, 이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따스한 햇살에 우리의 마음도 따스해집니다(시 8:6). 이와 같은 봄의 정취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제1차 청지기훈련의 말씀(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사 53:12)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주력교구별로 진행 중에 있으니 주력교구가 아니라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요 5:39)를 만나는 교육훈련원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오늘, 2010년 제2차 성찬식(1~5부예배)

오늘 1~5부예배 시에 제2차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새 언약,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과 기쁨으로 가득하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전 11:25).

메시아의 죽음 24

병행되는 사건들
(진행되는 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다. 누가는 이 최초의 성찬식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성찬 후에 가롯 유다

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이다”(눅 22:21~22). 이 말씀에 놀란 제자들의 반응도 기록하였다(눅 22:23). 이에 반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기록했을 뿐 최초의 성찬식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가롯 유다의 배신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하였다(요 13:10~11, 18~21). 또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몸서리꼴로워했다는 것도 요한은 기록하였다.

마지막 만찬 후에 예수님은 겔사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잡혀졌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대해 사도 요한은 군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며, 이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이바에게 심문을 당했다고 밝혔다(요 18:12~14, 19~20, 24).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눅 22:52~53), 다음 날에 예수님이 공회에서 심문을 당했다고 기록하였다(눅 22:66). 공회에서의 사건에 대해 마가는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치되는 것이 없는 거짓 증언이었음을 기록하였다(막 14:56). 예수님의 십자가행이 결정된 후에 로마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채찍질하였다. 이와 같은 희롱과 채찍질에 대해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요 19:1~3, 16).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고 기록하였다(눅 23:33).

이와 같이 메시아의 죽음을 기록한 사복음서는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의 죽음과 대속이 변하지 않는다. 단지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병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길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그 길을 포기한 자가 있다. 그는 가롯 유다이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배신을 무척 안타까워하셨다(눅 22:15, 21; 요 13:21).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는가! 그러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던 유다는 사탄의 시기에 속았다(요 13:27).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가롯 유다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자 존심과 교만을 버리지 않고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에게 남겨진 길은 완난과 필박으로 가득한 십자가의 길이다. 가롯 유다를 속인 사탄은 자신의 승리를 확인했을지 모르지만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요 13:31).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그것이 승리였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자. 당장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맘을 버리네.” 아멘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Sermon for Next Sunday

THE PRAYER OF JABEZ

(9) Jabez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and his mother named him Jabez saying,

"Because I bore him with pain." (10) Now Jabez called on the God of Israel, saying,

"Oh that You would bless me indeed and enlarge my border, and that Your hand might be with me, and that You would keep me from harm that it may not pain me!"

And God granted him what he requested. (1 Chronicles 4:9-10)

Who was Jabez? His name is mentioned under the genealogical record of Judah, one of the twelve tribes, which clearly indicates that he was of the tribe of Judah. Not many people pay attention to these verses because of their location within a long line of other names. So, Jabez is very easy to miss because there is no mention of him anywhere else in the Scriptures. All we know about him is found in today's two verses, which begin by telling us that he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and that his name means pain/sorrow, "Jabez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and his mother named him Jabez saying, 'Because I bore him with pain'" (1 Chr. 4:9). We do not know why he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but we do know that his mother gave him this name because she must have had a very difficult delivery. All women experience labor pains in childbirth, so her pain had to be above and beyond the norm. Regardless of his terrible name, he was a praying man, "Now Jabez called on the God of Israel" (1 Chr. 4:10). Prayer is powerful. Look at Jesus' life, "In the days of His flesh, He offered up both prayers and supplications with loud crying and tears to the One able to save Him from death, and He was heard because of His piety" (Heb. 5:7). Do you pray like that? Jesus prayed, "Father,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I knew that You always hear Me; but because of the people standing around I said it, so that they may believe that You sent Me" (Jn. 11:41-42). Right after this prayer, Lazarus rose from the dead. Jesus also taught His disciples that certain demons cannot come out of people except by prayer, "This kind cannot come out by anything but prayer" (Mk. 9:29). Prayer is a necessary and valuable communication tool that all Christians need to utilize. The key is trusting God through prayer. Let's look at the prayer of Jabez.

Jabez prayed, "Oh that You would bless me indeed and enlarge my border" (1 Chr. 4:10). He wanted God to extend his border. He was weak and many enemies had come against Israel, resulting in the loss of land. Jabez request to God was both defensive and offensive. Remember God's promise in His commission to Joshua, "Now it came about after the death of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that the LORD spoke to Joshua the son of Nun, Moses' servant, saying, 'Moses My servant is dead; now therefore arise, cross this Jordan, you and all this people, to the land which I am giving to them, to the sons of Israel. ...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tremble or be dismayed,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Josh. 1:1-9). Jabez

wanted God's blessing. Like Jabez, we need to never give up or lose faith. James 1:12 says, "Blessed is a man who perseveres under trial; for once he has been approved, he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which the Lor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Like Jabez, we need to pray with faith.

Jabez prayed, "and that Your hand might be with me" (1 Chr. 4:10). Jabez asked for God's power. He didn't want to rely on the power of his own hands; he wanted to rely on the power of God's hand. He depended on God. God's hand is all powerful, "And a leper came to Him and bowed down before Him, and said,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Jesus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him, saying, 'I am willing; be cleansed.' And immediately his leprosy was cleansed" (Mt. 8:2-3). Do you believe it? Do you see how much power is in the hand of God? Much prayer brings much power, and little prayer brings little power. This church has all kinds of meetings all the time, and in each meeting we need God's power, which means we need to pray!

Jabez prayed, "and that You would keep me from harm that it may not pain me" (1 Chr. 4:10). Jabez asked God for peace. God gives peace,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 (Jn. 16:33). No matter where we live on this earth we are going to face difficulties and problems, but if we pray, God will give us peace. Jesus reassured His disciples by saying, "Peace be with you" (Jn. 20:19-21). Jabez expressed a petition that God would keep him from evil. Jesus taught His disciples to pray, "And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Mt. 6:13).

My dear friend, God promises us.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Mt. 7:7-8). God promises that He will hear and respond to the prayers of His people. Oh, He may not always give us what we ask for, when we ask for it, in exactly the way that we asked, but He is the source of every good and perfect gift. Therefore, we can trust Him to answer our prayers by providing what He knows best that we need in harmony with His will, just as He did with the prayer of Jabez. Jabez prayed a true and earnest prayer. The Bible tells us that something remarkable and supernatural happened that would fill Jabez with hope, certainty and joy, "And God granted him what he requested" (1 Chr. 4:10). Amen.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9~10)



김성완 목사

야베스는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열두 지파 중 하나인 유다의 계보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유다 지파 사람임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사실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이 구절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야베스에 대해 놓치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성경 본문 두 절이 전부입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했으며, 그의 이름이 고통 또는 슬픔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대상 4:9). 우리는 왜 그가 그의 형제들보다 더 귀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심한 산고를 겪었고 그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출산을 할 때 산고를 겪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보통보다 훨씬 극심한 산고를 겪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신의 슬픈 이름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대상 4:10).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 5:7).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따르는 것은 돌리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1:41~42). 이 기도가 끝난 후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마귀들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서는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막 9:29).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필수적이고 귀중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입니다. 열쇠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살펴봅시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대상 4:10).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약했고 많은 대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땅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방어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맡기시면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노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나와 함께 하느니라” (수 1:1~9). 야베스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야베스처럼 우리도 결코 포기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12는 말씀합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베스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대상 4:10). 야베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의 권능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 8:2~3).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을 낳고, 적은 기도는 적은 능력을 낳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각 모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대상 4:10). 야베스는 하나님께 평안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우리가 이 땅 어디에서 살든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 20:19~21). 야베스는 하나님께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 6:13).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 7:7~8).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때에, 정확히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온전하신 선물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 분이 아는 최상의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어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도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야베스는 내 마음과 열정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야베스에게 소망과 확신, 기쁨을 안겨준 놀랍고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음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대상 4:10). 아멘. ■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그러나 크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이사야 53:12)

우리는 모든 것의 상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끌고 갔으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에 달라고 간구하셨다.
 예수님은 오직 죄인들을 위해 간절히 변호하셨다.
 주님은 낮고 천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높은 보좌 위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실다.



*정식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청지기훈련은 **이다. 왜냐하면**

청지기훈련은 하나님의 전산갑주를 입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삼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박연경(대학부)

청지기훈련은 은혜의 시간이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은혜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 딱딱하게 굳었던 나의 마음에 부드러운 물결처럼
 다가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박인기(육사, 예비다부)

청지기훈련은 **벧전 5:7**이다.

왜냐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승민(고등부)

청지기훈련은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에. 김소울(성도, 3교구)



청지기훈련은 **내가 범죄자였음을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정
 죄하고, 지금도 증보기도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무명)

청지기훈련은 **말씀 잔치**이다.

왜냐하면 매마른 심령에 영양을 보충하는 잔치
 니까! 박진숙(집사, 18교구)

청지기훈련은 **열정**이다.

왜냐하면 열정(enthusiasm)은 그리스어로 내 속
 에 있는 그리스도이므로. 최향숙(집사, 17교구)



청지기훈련은 **산산조각 질그릇**이다.

왜냐하면 깨지지 않으려던 질그릇이던 내가 깨져서 부서지
 고 죄를 깨닫게 되며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
 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깨닫기 때문이다. 김 겐(대학부)

청지기훈련은 **최고의 진수성찬**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갖가지 풍성한 말씀들이 우리의
 영을 부족함 없이 때부르게 먹여주시기 때문이다. 최용현(고등부)



청지기훈련은 **은혜의 마당**이다.

왜냐하면 말씀과 찬양으로 가득 찬 은혜를 받고 있
 으니 말이다. (무명)

청지기훈련은 **영적회복**이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철저하
 게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홍철호(집사, 24교구)

청지기훈련은 **내 영혼의 보약**이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의 원천이 되는 예수님과 판
 계가 회복되고 튼튼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선화
 (집사, 3교구)

청지기훈련은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의 잔치**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로운 잔치기 때문이다.
 (무명)



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주가 걸으신 거룩한 길 따라 나 오는 다시 걸으며 주 모습 그랬네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청지기훈련 참석자, 축적 인터뷰

Q. 청지기훈련에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나요?

A. 집이 교회 근처여서 금요일안침비에 나오다가 첫 청지기훈련에 참석하게 되었다. 오늘도 원래 일하는 날인데 오늘 청지기훈련을 한다고 직장에 말하고 휴가를 내서 참석하였다.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이번에도 주님을 꼭 만나고 싶었다.

류이(용굴, 외선부)

A. 비록 고3이어서 아직 방학이라서 청지기훈련에 나오는데 있어 특별한 부담감은 없었다. 청지기훈련에 나오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다. 김지영(교후부)

A.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공부를 하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게 되었다. 한마디로 진짜 청지기가 되고 싶은 기대를 하고 나왔다. 임준권(집사, 17교구)

Q.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A. 매순간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나를 위해 중보하심이 살아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정미영(평년부)

A.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외식자의 포장을 다 벗어버리고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도 십이 우리의 중보자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중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까지 중보기도 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고 따라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미지(집사, 20교구)

기자가 만난 믿음의 사람들

1. 나이 지긋한 76세의 초대관 권사(12교구)

제 옆자리에 앉으셔서 말씀도 크게 읽으시고, 찬양도 큰 목소리로 불러 은혜를 주셨던 분이요. 청지기훈련의 절반이 지난 다음부터는 다리가 아프신지 주먹으로 허벅지를 내려치시기도 하고, 발바닥을 지긋이 밟아 아픈 고통을 꼭 참고 있으신 듯했다. "충연 교회 아주 오래 다녔지. 청지기훈련은 빼놓지 않는데, 듣고 나면 금방 꺼먹어. 오늘 말씀 정말 좋던데! 아이구,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복습해야겠다."며 충중걸음으로 본당을 빠져나가셨다. 몸이 많이 안좋아 MRI 촬영까지 하셨다는 권사님, 예수 사랑의 열정만은 20대 못지 않은 분이셨다.

2. 영아부 신임반 교사인 김경숙 집사(15교구)

직장 끝나고 집에 들렀다 오느라고 처음부터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무척 아쉬워하신 분이요. 그래도 말씀의 은혜는 있었다고 한다. "는 기도에 걸림들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부터 그 분을 위해 더 중보해야겠어요."라며 선뜻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고백을 해주셨다. 대략씩 딸의 손을 붙잡고 행복해하던 집사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더 회개하며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시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3. 온 가족을 대동하고 나오신 유정명 집사(2교구)

"시댁식구들하고 다 같이 왔어요." 유정명 집사님은 시부모님과 남편, 중국에서 오신

시누이와 시아주버님, 조카 등 모두 8명이 함께 청지기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참으로 은혜롭고 다복한 집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나의 8배는 되는 것 같았다.

4. 15개월 된 자녀와 함께! 백영희 집사(5교구)

"오늘 청지기훈련 받는다고 김밥도 싸왔어요, 오랜만에 소풍 나온 듯 너무나 기쁘던걸요." 남편과 함께 15개월 된 자녀 하진이와 영아부실에서 화면을 보며 예배를 드렸다고 했다. "예배 중에 우는 아이들도 있고 시끄럽긴 해요. 그래도 찬양드리고 말씀듣는데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진이 보느라 정신이 없어 말씀을 읽을 순서를 놓치기도 했지만, 주변에서 말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더 은혜가 되었어요. 비록 화면을 통해 분주한 가운데 예배드리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5. 주자안내 봉사자, 이유성 집사(10교구)

예배드리기 한 시간 전부터 주자안내를 했다는 이유성 집사님에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예배드리세요?"라는 다소 무식한 질문을 던지자 "동문 밑에 차량부에서 주자인내 위원들이 따로 화면을 통해 예배드려요."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셨다. 위임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내용과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인 죄인의 회개기도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주자인내로 남들보다 가장 먼저 섬기고, 가장 늦게까지 추위와 싸우는 집사님의 모습이 정말 은혜로웠다.

취재 후기

청지기훈련 예배를 드리는 문당은 그 어느때보다 '맑음'이었다. 구름 한 점 없게 맑은 예배당 가운데에서 취재를 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행방이 총현의 성도들의 영혼을 뜨겁게 미추어 주었다. 하나님의 은사를 느낄 수 있었다. (박철호 사경기자)

큰 기대를 가지고 청지기훈련에 나온 성도들을 만나면서 내 자신이 무고러웠다. 너무나 준비하지 않은 채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셨다. 주님, 감사드려요. (김성희 취재기자)

"메시사가 범죄자로 죽고 범죄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목사님의 첫 선포부터가 나에게 영적 충격으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그 동안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은혜의 강에 못 빠져 헤엄치고 있었다. (오남주 취재기자)

이루듯 수천 명의 성도가 모여 하나의 예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며 예배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 (원종진 사경기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눅 5:32)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며,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먼저 불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부족하지만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지는데 나의 모든 것이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다.

사역 여섯째 날, 2인 1조로 한 팀이 되어 기도로 준비한 뒤 인공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전도를 나갔다. 병원 문 앞에 출입을 통제하는 잘 한 개인이 처음 있을 뿐인데 못 들어가면 어쩌나 싶어 두려움이 앞섰다.

집사님과 문 밖에서 두 손을 마주잡고 복을 전하는 일에 대담한 마음과 거룩한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들어갔다. 병원 환경은 열악했다. 환자들과 가족들을 만나며 인간적인 안타까움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하며 '이벤'으로 답하였다. 그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두 손을 꼭 잡고 주님께 간절히 구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이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길 기도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않고 영혼을 수확하는 신령한 농부가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임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린다.

우병희(집사, 2교구)

더듬더듬 말을 시작했다

아무 보잘것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믿을 없는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우리 팀원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대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 협력과 사랑으로 몸쳐서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더듬더듬 말을 시작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를 되풀이하며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다.

아름다운 선교지 땅을 주님이 만드셨고, 그 안에 많은 영혼을 지으셨으니 그 영혼들은 주님을 찾았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나는 부끄러운 것이 있다. 내 민족 내 이웃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지 못했음이 너무 부끄럽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님, 불평 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박순옥(집사, 19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3월 11일(월) ~ 3월 19일(금)	정로 1팀	최경하

선교지에서 온 편지 ③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된 복음

주님께서 일하신 또 다른 기적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쉐레메예브 블라지미르입니다. 1975년생입니다. 12년간 마약중독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중독으로 인해 2번이나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복음주의 교회에 출석하며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두번째 치료센터에서 나왔을 때에도 저는 도무지 저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어느 날 마약에 취해 길을 건널 때, 차가 저를 치었습니다. 앰블란스가 왔고, 의사들은 저를 죽었다고 판단하고 영안실로 옮겼습니다. 그 곳에 있는 탁자 위에 저를 누웠습니다. 제가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제 몸은 이미 최후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의 입 안에 철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다리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시체였던 것입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저는 저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조금 열려진 입으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푸른색으로 변한 저의 몸이 발끝에서 머리까지 조금씩 제 빛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목소리를 듣고서 저를 중한 자살로 옮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았다. 제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그 시각 어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저는 완전히 마약중독과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형제는 회개 후 저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도네츠크 주(州)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이 땅에서 이런 기적들을 볼 기회를 허락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사람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이 세세토록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서 교만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합니다.

송윤호(현직인 선교사)

*러시아어 번역은 김동원 전도사(성서부)가 하였다.

빛으로 채워 주옵소서

매마른 땅 익숙한 어둠에서
참 빛을 모르고 살아 온 나뭇들
바람 부는 날에도 한자리에 서서 잠자고

오래 견뎌온 목마름 갈급하여
무릎 다 젖도록 꿈에 간구할 때
한뼘쯤 남은 새벽
목청껏 토하는 닭 울음 소리 번져
바위산을 단숨에 치닫는 큰 무리 인가

다 이루시고 높은 곳에 계신 아여
배신하고 무너져
살고자 죽은 자들 죽고자 산 자들
깨어 듣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솔렁거리는 저 소리
처음부터 울려온 강물의 귀엣말
산에 들에 한길 샅에 핀 꽃
보얀 먼지 둘러쓰고서
수줍은 노랑게 웃기만 하고

활짝 열어 만나게 하소서 말하게 하소서
허락하신 공물이 바다같이 넘쳐하여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음성 얼마나 향기로운지

비슬수룩 쌓이는 가슴 깊은 곳에
빛으로 채워 주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 선교지에서 -
정훈환(출수집사, 24교구)

교회소식

Copyright © 2010 충청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